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산업생산지수,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0.8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li> <li>-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li> </ul> </li> <li>○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2.2%의 구성비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9.9%, 대형마트 5.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li> <li>-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등 판매호조로 9.9%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2개 → 금년 66개)로 5.5% 증가</li> </ul> </li> <li>○ 9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로 전도시 평균(0.1%)과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은 전월대비 0.2%, 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li> <li>- 생활물가 전월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1.6% 하락</li> </ul> </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2%로 전국대비 1.1%p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한 60.2%로 나타남</li> </ul> </li> <li>○ 9월 서울의 청년취업자 9.2%로 큰 폭 감소, 전국대비 청년취업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4천명(-2.3%) 감소한 4,803천명인 것으로 나타남</li> <li>-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2천명(-2.6%), 여자는 41천명(-2.0%)이 각각 감소</li> <li>-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2%) 6.0%p 차이를 보임</li> <li>-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승</li> </ul> </li> <li>○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4.3%, 전국대비 0.9%p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실업률은 4.3%로, 남자는 5.1%, 여자는 3.2%</li> </ul> </li> <li>○ 서울의 고용률 57.6%로 전국의 고용률(59.2%)보다 1.6%p 낮은 수준</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6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li> <li>- 공공부문은 사무실 공사 및 재생센터 기계설치 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1.8% 소폭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교정시설 및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li> </ul> </li> <li>○ 9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강남지역(1.3%)은 매수심리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강북지역(1.0%)도 재개발 추진과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됨</li> </ul> </li> <li>○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북지역(1.9%)에서는 도봉구(3.5%)가 물량 품귀현상으로 극심한 전세난을 보인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강남지역(2.6%)에서는 강서구(4.4%)가 이주수요 증가와 신혼부부 수요가 맞물리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li> </ul> </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8,549억원, 전월대비 0.78% 증가</li> </ul> </li> <li>○ 8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38개로 전년동월대비 16.5%(232개) 증가</li> <li>○ 8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5개로 전년동월대비 52.1%(38개) 감소</li> <li>○ 9월 서울시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서울의 수출은 35.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0.6% 증가. 수출 1순위는 반도체,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편직물, 자동차부품 등의 순</li> <li>- 9월 서울의 수입은 70.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1.6% 감소.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의류,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li> </ul> </li> </ul>

## | 생 · 산 |

## 8월 산업생산지수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감소(자동차, 선박 등의 업종에서 예년에 비해 휴가기간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타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1.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1.1%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

## ■ 8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 8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0.8(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전월대비 1.6% 증가
-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마이너스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달에 비해 다소 회복되는 모습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부문 마이너스 성장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3.7% 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1% 로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달에 비해 다소 회복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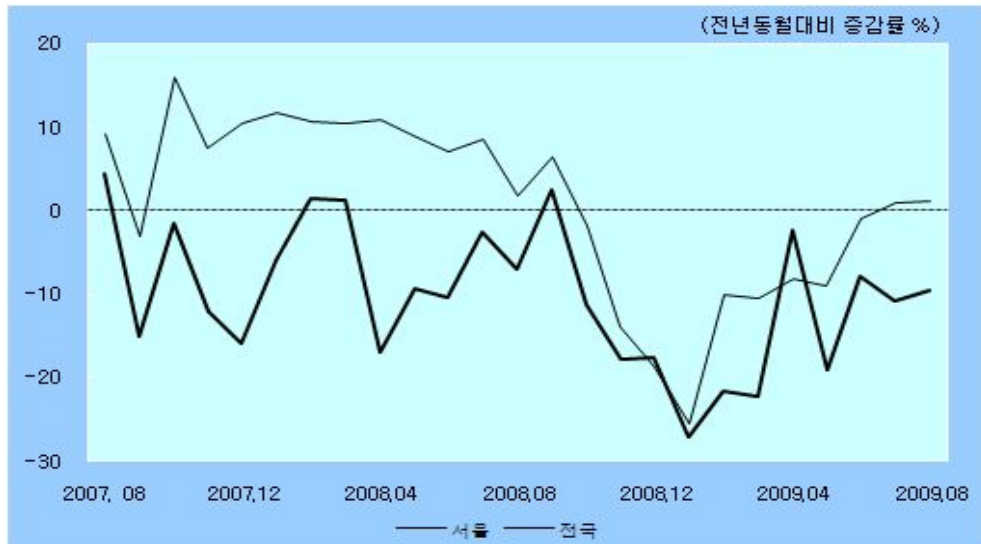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8 (-1.3)	-8.2 (2.6)	-9.0 (1.4)	-1.1 (5.8)	0.9 (2.1)	1.2 (-1.3)
	서울 (제조업)	-7.0 (0.1)	-2.3 (12.5)	-19.0 (-17.4)	-7.8 (4.0)	-10.9 (6.8)	-9.5 (1.6)
	중공업	-14.7 (8.6)	9.8 (46.5)	-24.0 (-23.8)	-8.4 (10.3)	-12.8 (-7.8)	-13.7 (7.5)
	경공업	-1.8 (-4.4)	-9.0 (-2.2)	-15.9 (-13.3)	-7.4 (0.5)	-9.9 (15.8)	-7.1 (-1.4)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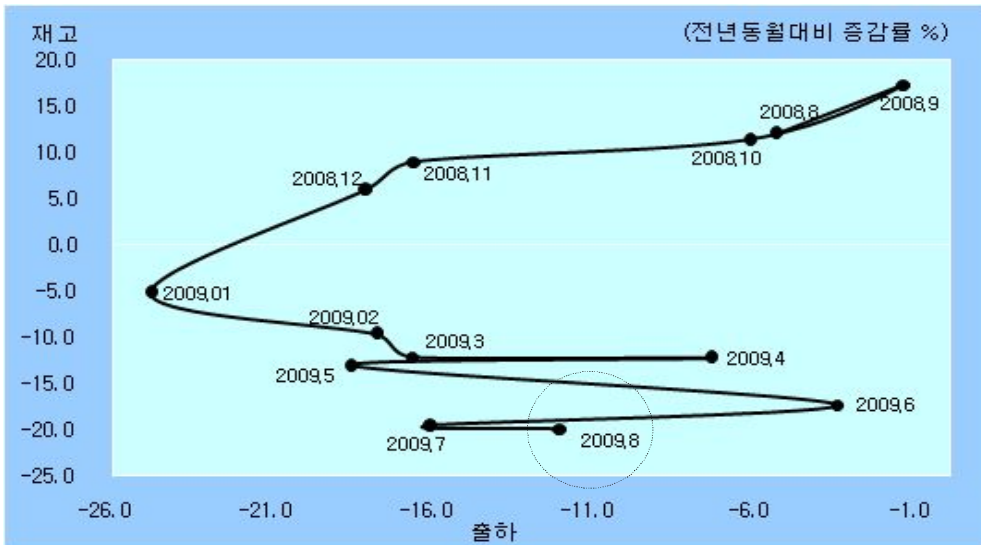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8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7.0로 전년동월대비 20.0%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1.2%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1.3(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5% 감소, 업종별로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금속가공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3.8% 증가
  - 출하 및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부문 증가, 경공업 부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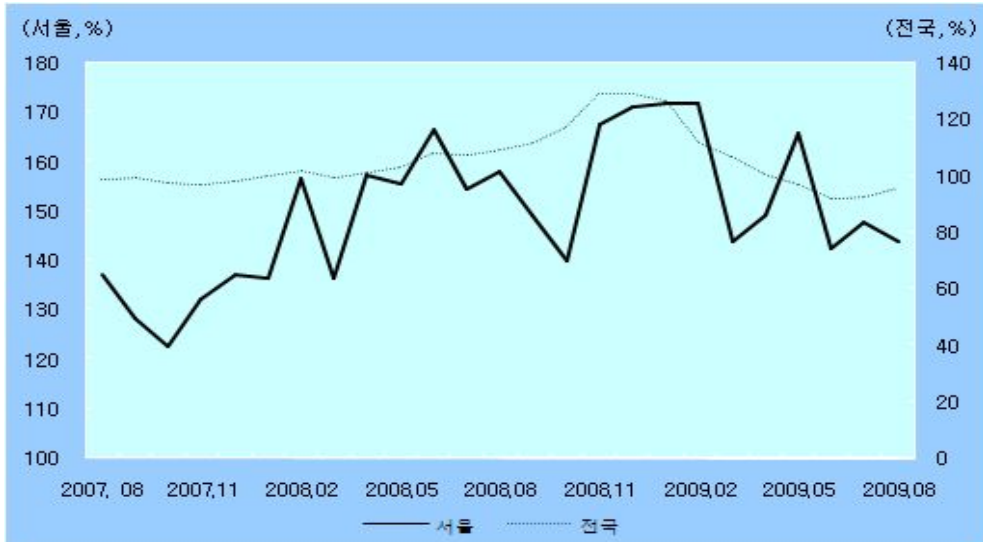
- 8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5.7%로 전월대비 3.0%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43.9%로 전월대비 4.0%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6.4%p 감소한 120.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3.4%p 증가한 151.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8월	2009년					전월대비 증감
		4월	5월	6월	7월p	8월p	
재고율	109.6	100.7	97.2	92.3	92.7	95.7	3.0
서울	158.1	149.1	165.9	142.5	147.9	143.9	-4.0
중공업	150.8	145.0	157.7	102.3	136.8	120.4	-16.4
경공업	160.8	147.8	167.4	166.5	147.8	151.1	3.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8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월대비 7.1% 증가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7.1%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5.9%, 대형마트의 경우 2.5%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7.1% 증가, 대형마트는 0.4% 감소
- 유형별 전월대비 증감은 준내구재 3.3% 증가, 비내구재 1.5%, 내구재 0.7% 각각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내구재 5.5%, 준내구재 0.2%, 비내구재 1.3% 증가로 나타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2.2%의 구성비를 보임

-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3,24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32.2%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9.9%, 대형마트 5.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4.1% 감소, 대형마트 2.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 감소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2개 → 금년 66개)로 의복,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5.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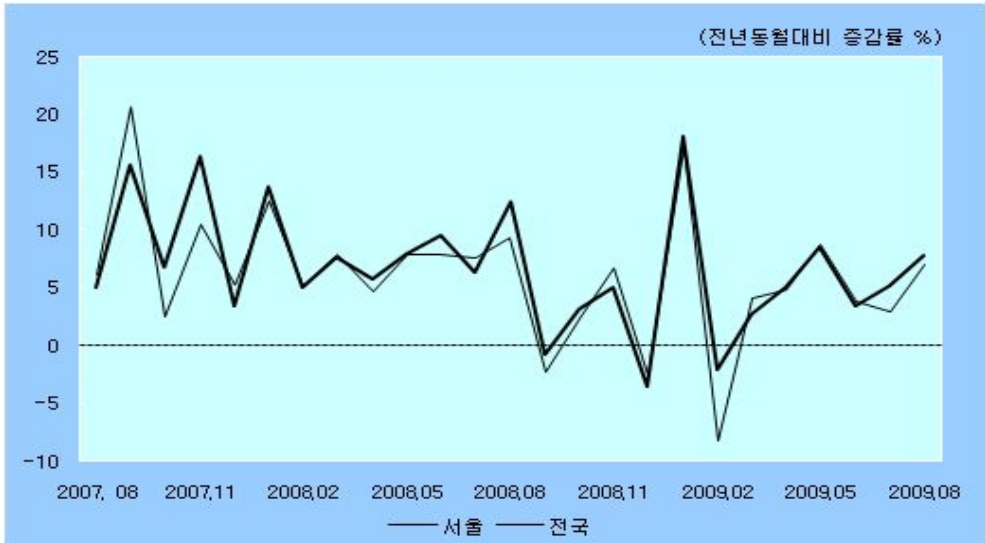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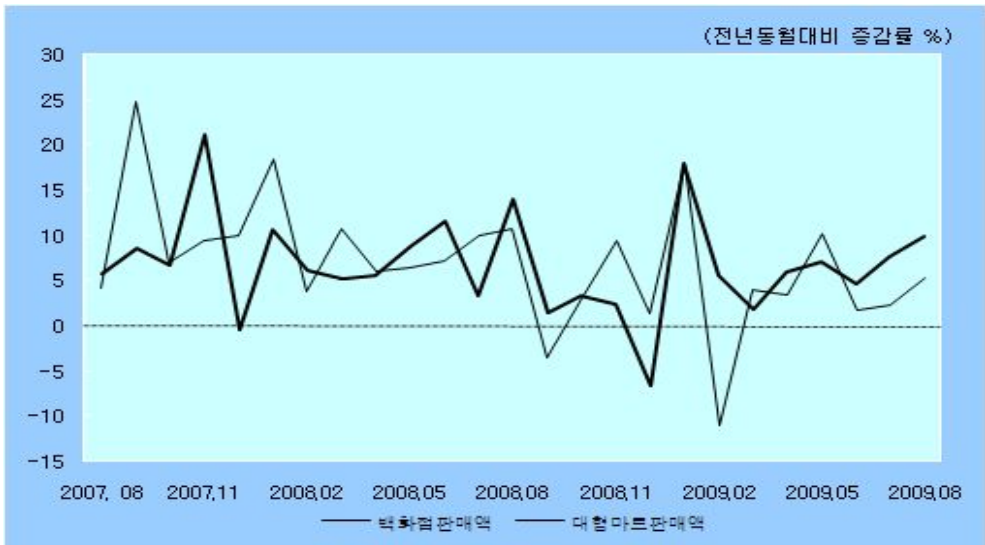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4월	5월	6월	7월p	8월p
판매액	전국	3835.4 (9.4)	4158.045 (4.8)	4543.5 (8.8)	4060.4 (3.8)	4127.5 (3.0)	4106.3 (7.1)
	서울	1228.1 (12.4)	1422.609 (5.0)	1510.7 (8.5)	1356.9 (3.4)	1337.7 (5.2)	1324.0 (7.8)
	백화점	639.4 (14.0)	841.0 (6.0)	855.4 (7.1)	765.7 (4.7)	732.9 (7.6)	703.0 (9.9)
	대형마트 (할인점)	588.7 (10.8)	581.5 (3.6)	655.3 (10.3)	591.1 (1.8)	604.8 (2.4)	621.0 (5.5)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9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1%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했으나 8월에 비해 감소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5로 전월대비 0.1%로 상승, 7월 이후 3개월째 상승하였으나 8월의 0.4%에 비해 상승률 감소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5.7% 상승
  -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대구 등 10개 시도는 0.1~0.2% 상승, 그 외 지역은 0.1% 하락
  
- 9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1%로 전도시 평균과 보합
  -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0(전국:113.5, 2005년=100)로 전월대비 0.1%(전국:0.1%), 전년동월대비 2.4%(전국:2.2%) 각각 상승
  - 시도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전도시 평균(0.1%)과 같고, 부산, 경기, 전남 등은 변동이 없으며, 인천, 울산, 제주도는 0.1% 하락
  - 상품은 전월대비 0.2%(전국:0.1%), 전년동월대비 3.0%(전국:2.2%) 각각 상승, 농축수산물 은 전월대비 0.2%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전국:0.0%), 전년동월대비 2.2%(전국:2.1%) 상승, 집세는 전월대비 0.3% 상승,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상승,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보합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1.6%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국:0.1%), 전년동월대비 2.0%(전국:1.7%)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6%(전국: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5.8%(전국:5.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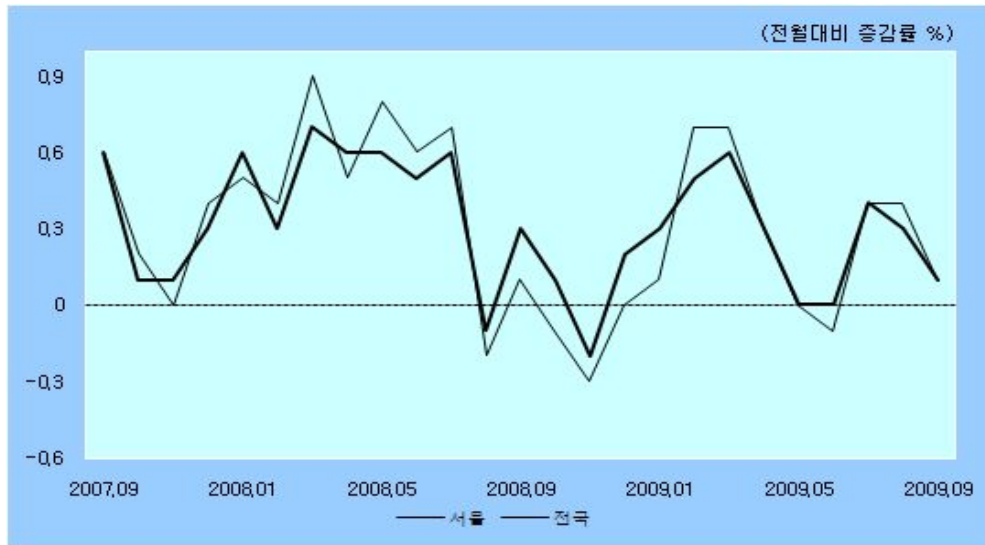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전국	0.1 (5.1)	0.3 (3.6)	0.0 (2.7)	-0.1 (2.0)	0.4 (1.6)	0.4 (2.2)	0.1 (2.2)	
	서울	0.3 (4.5)	0.3 (3.7)	0.0 (3.0)	0.0 (2.6)	0.4 (2.3)	0.3 (2.6)	0.1 (2.4)	
	상품 성질별	상품	0.4 (6.4)	0.4 (6.1)	-0.1 (4.4)	-0.4 (3.0)	0.5 (2.2)	0.4 (3.2)	0.2 (3.0)
		서비스	0.1 (3.4)	0.2 (2.5)	0.0 (2.3)	0.2 (2.2)	0.4 (2.3)	0.2 (2.3)	0.0 (2.2)
	생활물가	0.1 (4.6)	0.7 (3.3)	-0.2 (2.4)	-0.3 (1.5)	0.4 (1.3)	0.3 (2.0)	0.2 (2.0)	
	신선식품	-1.7 (-12.7)	3.6 (15.4)	-1.8 (14.4)	-8.5 (10.7)	1.7 (8.8)	1.7 (5.7)	-1.6 (5.8)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9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 지속

- 9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3%p로 전월과 보합
  - 전국 9월 15세 이상인구는 40,2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6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4천명(0.7%)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394천명으로 171명(1.2%)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36천명으로 3천명(0.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9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2%로 전국대비 1.1%p 낮음
  - 9월 15세이상인구는 8,3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천명(-1.7%)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3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명(4.9%)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5 (0.3)	-0.2 (1.6)	-0.1 (0.8)	0.8 (1.1)	0.3 (-0.7)	0.6 (-0.9)	0.7 (0.4)
	서울	-1.3 (-0.7)	-1.2 (0.3)	-1.3 (0.2)	-0.7 (0.6)	-1.2 (-0.3)	-2.5 (-1.9)	-1.7 (0.1)
	남자	-0.9 (-0.9)	-0.9 (0.1)	-0.9 (0.7)	0.0 (0.5)	-1.0 (-0.4)	-2.3 (-1.8)	-1.6 (-0.2)
	여자	-1.7 (-0.4)	-1.6 (0.6)	-1.8 (-0.6)	-1.6 (0.7)	-1.4 (-0.2)	-2.8 (-2.0)	-1.8 (0.5)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6	61.2	61.6	62.2	61.7	61.1	61.3
	서울	61.7	61.2	61.3	61.6	61.3	60.1	60.2
	남자	73.4	72.7	73.2	73.5	73.1	71.8	71.6
	여자	50.7	50.4	50.0	50.3	50.2	49.1	49.4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9월 서울의 청년취업 9.2%, 감소 폭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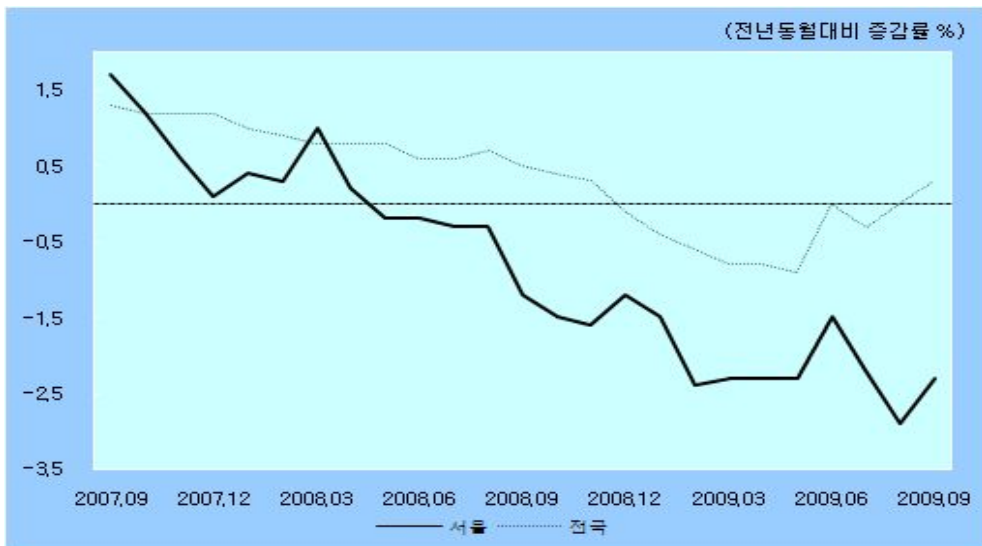
- **전국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71천명 증가, 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9월 취업자는 23,8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명(0.3%)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천명(0.7%) 증가하였고, 여자는 9,966천명으로 26천명(0.3%) 감소하여,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2%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음
  
- **9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 9.2% 큰 폭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9월 취업자는 4,8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명(-2.3%)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54천명, 여자는 2,0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2천명(-2.6%), 여자는 41천명(-2.0%)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4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2천명(4.0%),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7천명(3.7%), 도소매·음식숙박업 8천명(0.6%)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135천명(-21.7%), 건설업 87천명(-20.1%)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2%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3.2%) 6.0%p의 차이를 보여 전국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여 전월에 비하여 상승,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로, 전반적으로 4.4% 상승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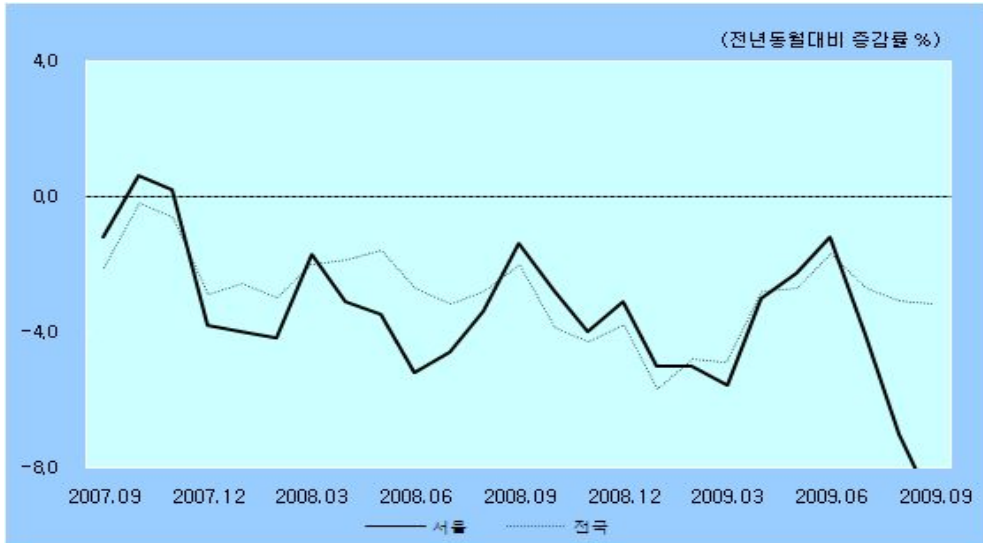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전국	0.5 (0.5)	-0.8 (1.8)	-0.9 (0.8)	0.0 (1.0)	-0.3 (-0.6)	0.0 (-0.9)	0.3 (0.8)
	서울	-1.2 (-0.3)	-2.3 (0.3)	-2.3 (0.4)	-1.5 (0.7)	-2.2 (-0.6)	-2.9 (-1.5)	-2.3 (0.3)
	남자	-0.5 (-0.7)	-2.4 (0.4)	-2.2 (1.3)	-1.4 (0.4)	-2.5 (-0.7)	-3.2 (-1.4)	-2.6 (0.0)
	여자	-2.1 (0.4)	-2.2 (0.1)	-2.5 (-0.7)	-1.6 (1.2)	-1.8 (-0.3)	-2.4 (-1.7)	-2.0 (0.8)
청년층 취업자	전국	-2.0 (-1.7)	-2.8 (3.0)	-2.7 (1.6)	-1.7 (-0.2)	-2.7 (1.4)	-3.1 (-3.1)	-3.2 (-1.9)
	서울	-1.4 (-0.9)	-3.0 (3.8)	-2.3 (2.1)	-1.2 (-0.9)	-4.1 (-0.7)	-7.0 (-4.0)	-9.2 (-3.3)
고령층 취업자	전국	2.1 (2.1)	8.6 (4.6)	1.0 (2.0)	4.4 (3.2)	3.7 (-1.6)	4.7 (0.1)	4.6 (2.0)
	서울	-3.4 (0.7)	-1.9 (0.5)	-1.7 (-0.3)	4.8 (4.3)	3.5 (-1.3)	2.2 (-1.4)	4.4 (2.9)
	55-59세	3.2 (-0.3)	6.3 (0.6)	1.7 (-1.4)	3.2 (0.9)	4.2 (-0.8)	0.3 (-2.3)	2.9 (2.0)
	60세 이상	-8.0 (1.7)	-1.7 (0.5)	-4.6 (0.8)	6.2 (7.3)	2.9 (-1.6)	3.7 (-0.7)	5.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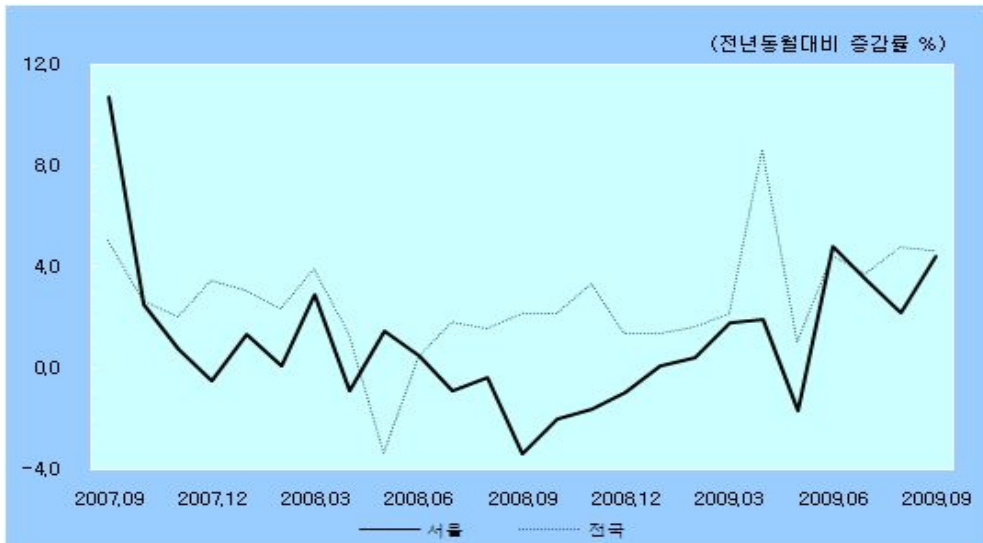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은 증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6.7%), 사무종사자 40천명(4.9%),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천명(1.6%)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67천명(-11.9%), 서비스·판매종사자 10천명(-0.8%)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3.2%, -2.0%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197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9천명(-3.2%), 임금근로자는 75천명(-2.0%)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3천명(-3.1%),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천명(3.4%)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11천명(-0.9%), 일용근로자 130천명(-23.1%)은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8.9%, 81.0% 각각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2천명(-64.5%)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7천명(26.0%)이 증가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천명(-12.9%)이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943천명(-73.4%)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7천명(8.9%)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640천명(81.0%)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2.3%)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2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별	제조업	-6.8 (8.4)	-20.3 (-9.0)	-15.5 (4.5)	-17.2 (-4.8)	-16.4 (-1.2)	-14.3 (-3.6)	-21.7 (-1.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0 (-1.4)	0.4 (1.6)	-0.3 (-0.1)	0.8 (1.4)	-0.3 (-0.5)	-1.4 (-1.3)	0.4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6 (0.3)	5.1 (2.5)	4.7 (0.4)	6.6 (2.9)	6.4 (-0.3)	4.9 (-1.8)	4.0 (-0.5)
	도소매·음식숙박	0.9 (-3.5)	-1.6 (0.3)	-2.0 (-0.8)	-1.0 (1.1)	-3.6 (0.0)	-4.3 (0.0)	0.6 (1.5)
	전기·운수·통신·금융	-2.6 (-3.6)	1.6 (3.3)	-0.2 (0.6)	-1.5 (-0.3)	0.1 (-0.7)	-1.2 (-1.6)	3.7 (1.2)
	건설업	-0.6 (1.9)	-14.1 (-1.7)	-15.8 (-1.2)	-13.6 (-1.4)	-18.1 (-3.1)	-18.9 (-2.3)	-20.1 (0.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8 (0.7)	2.0 (2.4)	0.3 (-0.9)	3.0 (2.1)	2.2 (0.5)	2.3 (-1.0)	1.6 (0.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종사자	-5.6 (0.4)	-11.4 (-3.4)	-9.7 (2.8)	-8.6 (0.1)	-9.6 (-2.2)	-11.5 (-2.3)	-11.9 (-0.1)
	서비스·판매종사자	-0.5 (-3.5)	-1.9 (-0.2)	-1.7 (0.0)	-0.9 (0.8)	-2.6 (-0.4)	-4.9 (-1.7)	-0.8 (0.6)
	사무종사자	-1.0 (2.4)	5.4 (3.2)	5.2 (0.0)	2.4 (-0.9)	3.5 (-0.2)	6.3 (-1.1)	4.9 (1.0)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0 (1.1)	-1.5 (0.1)	-2.7 (-0.1)	-1.0 (1.2)	-2.2 (-0.7)	-1.5 (-1.4)	-2.0 (0.5)
	비임금근로자	-4.4 (-4.1)	-4.9 (1.0)	-1.1 (2.0)	-2.8 (-0.6)	-2.2 (-0.1)	-6.8 (-1.9)	-3.2 (-0.3)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업·률 |

8월 서울의 실업률 4.3%로, 전국대비 0.9%p 높음

- **전국의 실업률 3.4% 상승하였으며, 20대와 40대 이상에서 상승**
  - 전국의 9월 실업자는 8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명(14.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15.3%) 증가하였고, 여자는 2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12.3%) 증가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와 40세 이상에서 상승, 15~19세와 30대에서는 하락
  
- **서울의 실업률 4.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국(3.4%)대비 0.9%p 높음**
  - 2009년 9월 실업자는 2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13.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19.9%), 여자는 68천명으로 2천명(2.3%)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국대비(3.4%) 0.9%p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로 전년동월대비 1.0%p, 여자는 3.2%로 0.1%p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6%로 전국의 고용률(59.2%)보다 1.6%p 낮은 수준**
  - 전국의 9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48.5%로 전년동월대비 0.6%p 각각 하락하였으며, 20~40대에서 하락하였음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57.6%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0%로 전년동월대비 2.3%p, 여자는 47.8%로 1.4%p 각각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2%)에 비해 1.6%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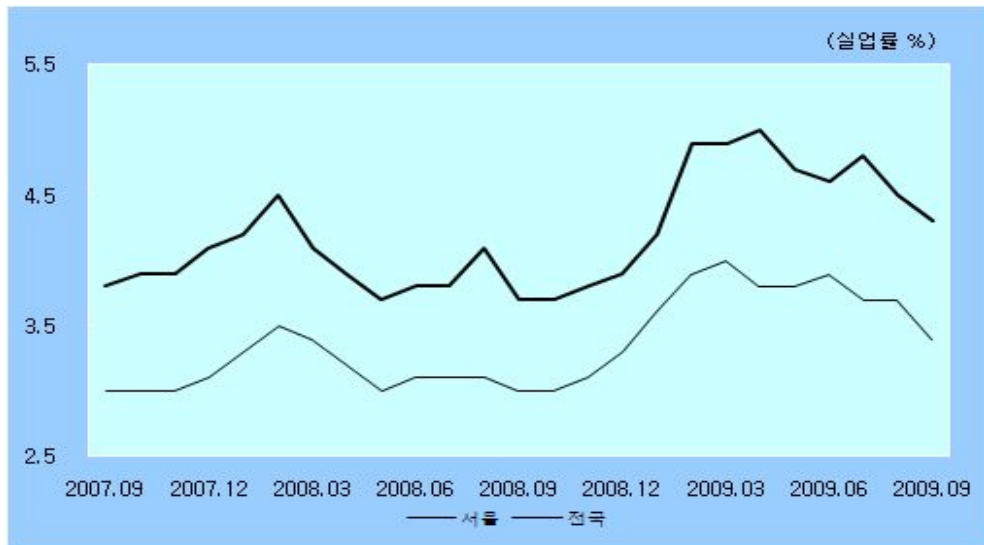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업률	전국	3.0	3.8	3.8	3.9	3.7	3.7	3.4	
	서울	3.7	5.0	4.7	4.6	4.8	4.5	4.3	
	성별	남자	4.1	5.8	5.2	5.3	5.6	5.2	5.1
		여자	3.1	3.9	4.0	3.6	3.7	3.4	3.2
고용률	전국	59.8	58.8	59.3	59.8	59.4	58.8	59.2	
	서울	59.5	58.2	58.4	58.7	58.4	57.5	57.6	
	성별	남자	70.3	68.5	69.4	69.6	69.0	68.0	68.0
		여자	49.2	48.4	48.0	48.5	48.3	47.5	47.8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설·경·기 |

## 2009년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8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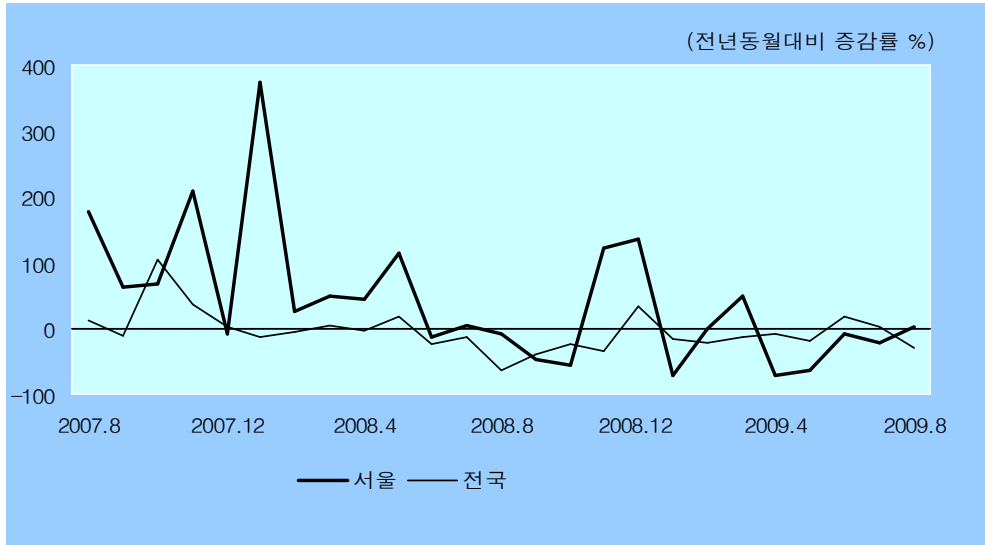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6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3,5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5%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9.9%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 사무실 공사 및 재생센터 기계설치 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1.8% 소폭 증가
- 민간부문에서 교정시설 및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6,169	7,249	6,988	11,247	5,527	4,352	-29.5	-21.3	
서울	856	411	1,024	1,795	740	864	0.9	16.8	
발주 자별	공공	100	149	147	197	40	102	1.8	155.0
	민간	756	191	872	1,547	967	758	0.2	-21.6
공종 별	건축	824	243	978	1,665	726	800	-3.0	10.2
	토목	31	165	46	129	14	62	97.3	342.9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9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확대

##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및 결혼시즌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0.7% 상승하며 상승 폭이 확대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이 각각 0.8%, 0.4%, 0.9% 상승하며 주택유형 전반에 걸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립주택의 강세가 2개월 연속 지속되는 모습

## ■ 9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 강남지역(1.3%)은 매수심리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1.4%), 단독(1.0%), 연립주택(1.2%)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강북지역(1.0%)도 재개발 추진과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9월		
전국	101.2	100.0	100.9	-0.5	0.7
서울	101.9	100.9	102.1	0.2	1.1
아파트	102.8	101.1	102.3	-0.6	1.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1.2	100.3	101.3	0.1	1.0
강남	102.6	101.6	102.9	0.2	1.3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1.0%)에서는 서대문구(1.5%)가 중소형 아파트 매물 부족과 연희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가시화에 따른 인근지역 단독연립주택 수요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1.4%)는 경전철 사업 진척 및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다가구 주택 투자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됨
- 종로구(1.3%)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문화 디자인 거리 조성 등 호재로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됨

#### ■ 강남지역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지역(1.3%)에서는 관악구(1.6%)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 증가로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강남구(1.6%)는 중소형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을 보인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도 꾸준하여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서초구(1.5%)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호재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강동구(1.4%)는 재건축 사업 가시화로 인근 지역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등 호재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짐

#### ■ 9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9월 25일 기준)은 1,840.62만원으로 전월(1,824.26만원) 대비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01만원), 서초구(2,803만원), 용산구(2,568만원), 송파구(2,517만원), 양천구(2,013만원), 강동구(1,919만원), 광진구(1,86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24만원), 중랑구(1,133만원), 강북구(1,134만원), 도봉구(1,16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 9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및 결혼시즌에 따른 계절적 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2002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전월대비 1.4% 상승하며 상승세가 확대됨
- 수도권(2.0%)의 전세가격이 강세를 지속한 가운데, 광역시(1.0%)와 기타지방(0.6%)도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1.8%, 0.6%, 1.2% 상승하며 전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아파트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 9월 서울 전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1.9%)에서는 도봉구(3.5%)가 물량 품귀현상으로 극심한 전세난을 보인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증가하고, 인근 지역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 가세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노원구(3.1%)도 물량 부족으로 수요자 대기상태를 보인 가운데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증가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광진구(2.4%)와 서대문구(2.0%) 등도 이사철 물량 부족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 강남지역(2.6%)에서는 강서구(4.4%)가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화곡 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와 신혼부부 수요가 맞물리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양천구(3.8%)도 학군 이주수요와 신월동 일대 신정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관악구(3.1%)는 물량 품귀현상을 보인 가운데 수요자 대기 상태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함. 서초구(2.8%)도 학군수요 등 계절적 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보인 가운데 신규 단지 가격 상승세가 기존단지로 전이되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 서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2.8%, 1.3%, 1.8% 상승하며 전 유형에 걸쳐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의 강세로 단독연립주택의 상승세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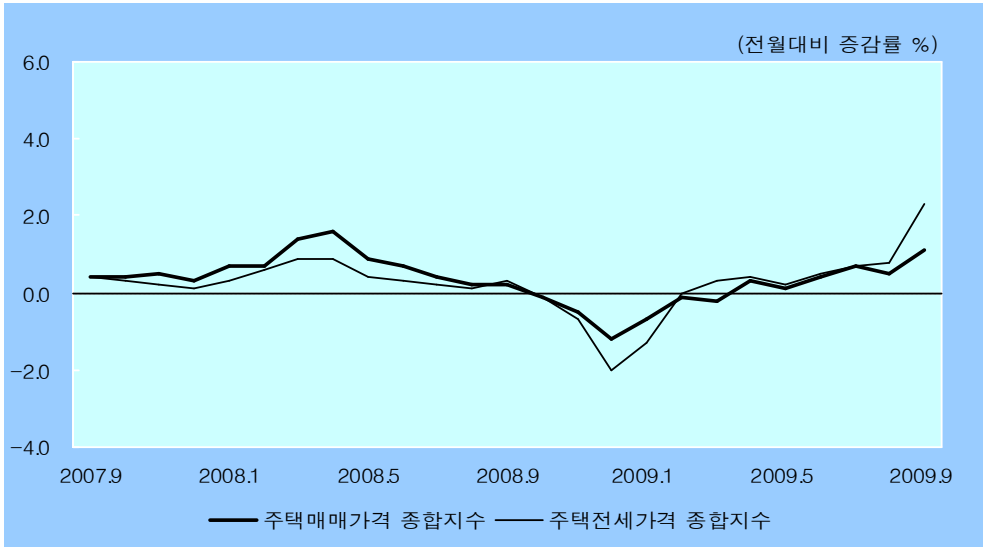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9월		
전국	101.3	100.4	101.8	0.5	1.4
서울	102.9	101.7	104.0	1.1	2.3
아파트	104.0	102.8	105.7	1.6	2.8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2.0	100.5	102.5	0.4	1.9
강남	103.8	102.9	105.6	1.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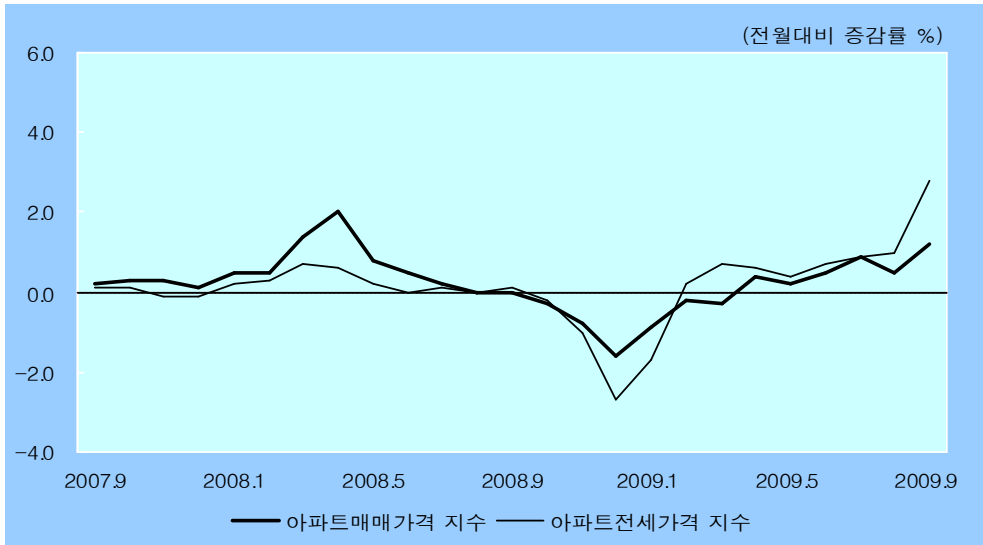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9.7%로 전월(39.1%)보다 0.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 38.7% → 5월 38.8% → 6월 38.9% → 7월 38.9% → 8월 39.1%)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9월 전국 평균 53.3%보다 13.6%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8%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2.5%, 강남 37.4%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1%p이며 지난 달(4.9%p)보다 소폭 상승.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9월 단기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 금리

- 장기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저가 매수자금 및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10.7일 현재 8월 말 수준을 소폭 상회
  - 회사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완화로 하락하여 8월말 수준을 하회
- 단기시장금리 꾸준한 상승세 지속
  - 단기시장금리(CDCP 금리 등)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주요 매수처인 MMF 수신 감소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의 상승세 지속

### 주가

- KOSPI 지수 상승세 유지
  - 9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확산, 우리나라의 FTSE 선진시장지수 편입(9.21일)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가 이후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  
(08년 10.24일 939p → 08년 12월말 1,124p → 8월말 1,592p → 9.22일 1,719p → 9월말 1,673p)
- 9월중 외국인 순매수에서 월말 순매도로 전환
  - 9월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였으나 월말경에는 순매도로 전환  
외국인 순매수: 5월 4.1조원 →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 8월 4.1조원 → 9월 5.1조원 → 10.1~7일 -0.5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리	국고채(3년)	5.74	3.83	4.09	4.09	4.42	4.40	-0.02
	CD(91일물)	5.83	2.41	2.41	2.41	2.48	2.64	0.16
	콜금리(1일)	5.22	1.91	1.93	1.93	1.98	1.99	0.01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09	1.42	1.68	1.68	1.94	1.76	-0.18
주 가	KOSPI	1,446.10	1,400.50	1,395.24	1460.03	1577.91	1659.45	81.54
	KOSDAQ	444.16	533.82	516.39	496.39	515.61	523.16	7.55
환율 (₩/US\$)		1136.64	1,255.62	1,262.28	1,261.96	1,239.69	1,215.00	-24.69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감소 전환

-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의 대규모 대출자산 양도 등으로 0.4조원 감소하였으며, 양도분을 포함하더라도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줄어든 2.4조원 증가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지급,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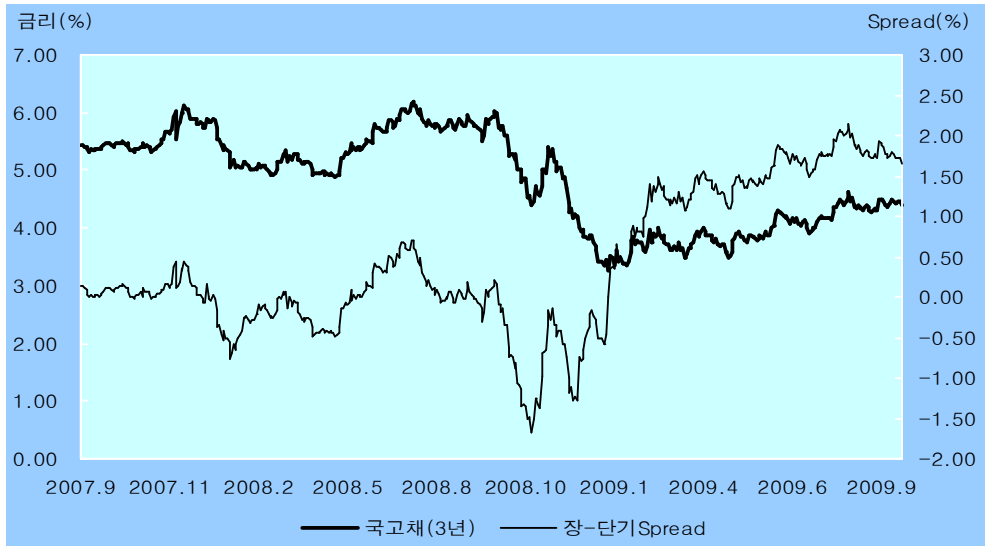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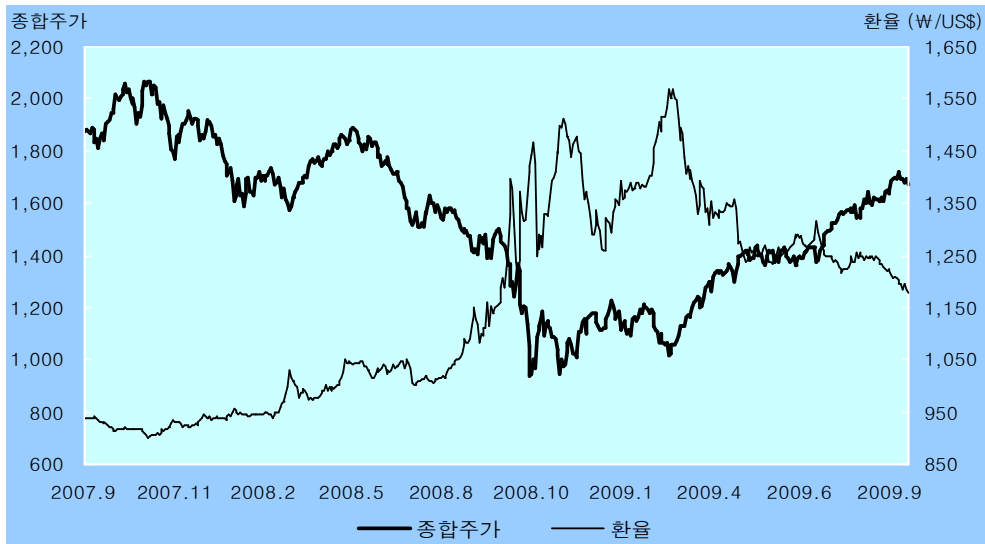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5월	6월	7월	8월	9월	2009년		
							8월	9월	
가계대출 <sup>1)</sup>	25.0	2.8	4.0	2.6	3.0	-1.0	405.1	404.2	-0.22
주택담보대출 <sup>2)</sup>	18.1	2.4	3.5	3.4	2.8	-0.4	260.5	260.1	-0.1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5	0.5	-0.7	0.2	-0.5	143.3	142.8	-0.3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8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49조 9,1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 3,155억원 (0.83%) 증가
- 8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8,549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조 9,445억원 (0.78%)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8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예금은행	891,376.30	943,796.4	947,207.9	950,708.7	956,229.6	5,520.9	0.58
	비은행기관	278,008.30	284,582.2	286,925.1	288,885.8	293,680.4	4,794.6	1.66
	합계	1,169,384.60	1,228,378.6	1,234,133.0	1,239,594.5	1,249,910.0	10,315.5	0.83
서울	예금은행	390,593.60	417,257.8	416,976.6	419,566.7	420,959.5	1,392.8	0.33
	비은행기관	85,777.10	85,176.6	85,866.8	86,343.7	88,895.4	2,551.7	2.96
	합계	476,370.70	502,434.4	502,843.4	505,910.4	509,854.9	3,944.5	0.7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8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소폭 하락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전월보다 0.7%p 하락하여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4월 90.2% → 5월 89.9% → 6월 89.2% → 7월 89.8%)
- 서울의 8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1.7%를 나타내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8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88.5	89.9	89.2	89.8	89.1	-0.7
서울	61.2	62.9	62.2	62.2	61.7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8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지속
  - 8월 신설법인은 4,567개로 전월비로는 17.0%(934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23.0%(854개) 증가하여 6월부터 3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8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38개로 전월대비 17.0%(336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6.5%(232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서비스업, 제조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8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0.6%(120개) 증가, 제조업 88.6%(124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8.9%(1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713	4,029	5,393	5,501	4,567	-934	-17.0	854	23.0
서울	1,406	1,426	2,019	1,974	1,638	-336	-17.0	232	16.5
서비스업	1,134	1,127	1,546	1,490	1,254	-236	-15.8	120	10.6
제조업	140	203	318	321	264	-57	-17.8	124	88.6
건설 및 설비업	123	91	151	158	112	-46	-29.1	-11	-8.9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8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10개로 전월(129개)보다 14.7%(19개)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38.2%(68개) 감소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8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5개로 전월대비 22.2%(10개)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52.1%(38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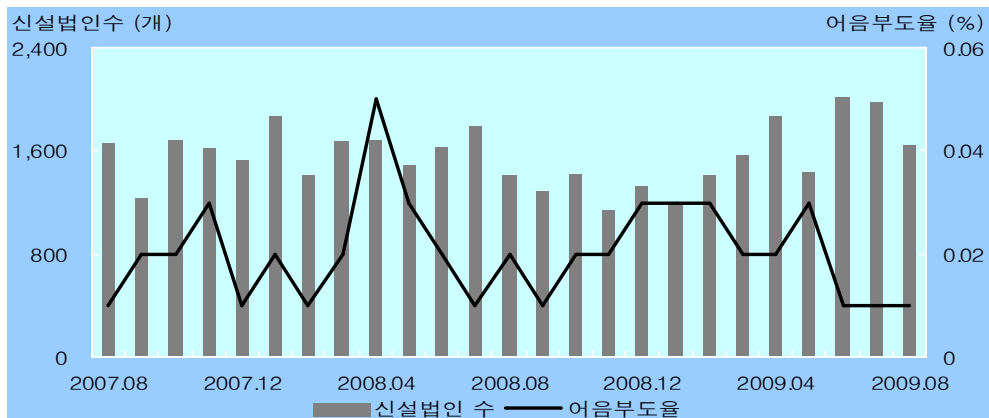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8월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4	0.02	0.02	0.02	0	0.0	0.00	0.0
	부도업체 수	178	151	125	129	110	-19	-14.7	-68	-38.2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3	0.01	0.01	0.01	0	0.0	-0.01	-50.0
	부도업체 수	73	52	51	45	35	-10	-22.2	-38	-52.1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월간 신용보증 총 공급규모 증가세

#### ■ 금융부문 소외계층 소액 보증지원 체제 확립

- 9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3,699건, 212,133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5.1%, 금액 기준 4.3%의 증가율을 기록함
- 소액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집중지원 체제 유지로 신용보증 건당평균금액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증공급 총량은 두 달 연속 증가추세
-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건수 기준 229.5%, 금액 기준 203.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당평균금액은 7.7% 대폭 감소를 나타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4,157	10,915	10,894	10,944	13,036	13,699	663	5.1	9,542	229.5
금액	69,908	207,449	210,545	190,971	203,478	212,133	8,655	4.3	142,225	203.4
건당평균금액	16.8	19.0	19.3	17.4	15.6	15.5	-0.1	-0.6	-1.3	-7.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서비스업 점유비 증가세 유지

- 9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특징은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건수기준 3.1%p(40.5% → 43.6%), 금액기준 2.7%p(31.3% → 34.0%) 증가로 석달 연속 점유비 증가세를 유지함
- 반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타 업종 신용보증 합계는 석 달 연속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비중 감소세를 나타내며 각각 56.4% 와 66.0%의 비율을 차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687	4,005	1,812	5,964	1,231	13,699
비율		5.0	29.2	13.2	43.6	9.0	100
금액		15,916	71,216	31,806	72,182	21,013	212,133
비율		7.5	33.6	15.0	34.0	9.9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대비 중소기업 차지비율의 증가 및 소상공인 점유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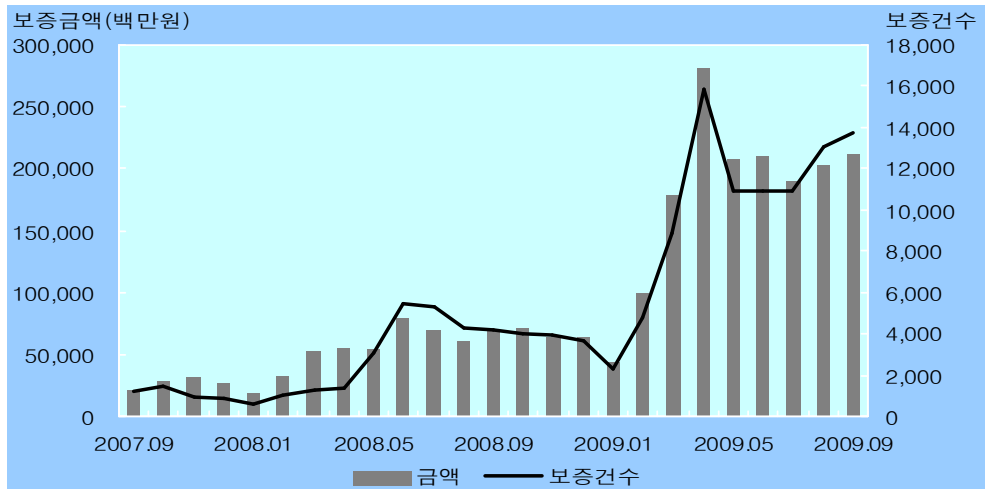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9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차지비율이 전월대비 건수기준 0.1%p, 금액기준 0.4%p 증가한 수치로 집계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건수 및 금액기준 전월대비 동일수준을 유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7	2009.08	2009.09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0,663	12,787	13,444	657
	비율	97.4	98.1	98.1	0
	금액	180,217	192,341	200,550	8,209
	비율	94.4	94.5	94.6	0.1
소기업	건수	242	216	213	-3
	비율	2.2	1.7	1.6	-0.1
	금액	8,203	9,541	9,015	-526
	비율	4.3	4.7	4.2	-0.5
중기업	건수	39	33	42	9
	비율	0.4	0.2	0.3	0.1
	금액	2,553	1,596	2,568	972
	비율	1.3	0.8	1.2	0.4
합계	건수	10,944	13,036	13,699	66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90,971	203,478	212,133	8,65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 전국 수출 감소율 한 자릿대 진입

- 9월 전국의 수출감소율(7.8%)이 지난 해 10월 이후 최저를 보이면서 한 자릿대에 진입, 수입감소율(24.6%)도 금년 들어 최저를 기록
- 수출감소율이 한 자릿대에 진입하여 불황형 흑자 탈출 조짐이 보임. 지난해 10월 이후 교역량 최대, 수입감소폭도 3개월 연속 감소
-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전월대비 수출 19.1%, 수입 9.3% 증가하였고 총 교역액도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규모

####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중 수출은 345억달러, 수입은 298억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47억 달러 흑자 달성
- 주요 수출 주력품목 회복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수출입 감소율 모두 크게 개선된 가운데 수출 회복세가 수입을 상회함. 수출입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총 교역량도 최대 규모

#### ■ 서울의 수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수출은 35.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6% 증가하였고, 수입은 70.7억달러로 11.6% 감소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27.6%, 9.3% 증가

#### ■ 9월 기준 수출 1순위는 반도체, 수입 1순위도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571,344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편직물, 자동차부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28,554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의류,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7,428	28,148	32,634	32,023	28,966	34,507	-2,921	-7.8	5,541	19.1
	수입	39,528	23,088	25,364	27,617	27,262	29,795	-9,733	-24.6	2,533	9.3
서울	수출	2,729	2,229	2,510	3,098	2,793	3,565	836	30.6	772	27.6
	수입	8,002	5,517	6,002	6,581	6,470	7,073	-929	-11.6	603	9.3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180,048	-13.8	571,344	217.3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6,907	339	314,992	370.8
3	편직물	170,396	4.9	192,291	12.8
4	자동차부품	114,550	14.9	182,966	59.7
5	합성수지	111,846	9.1	159,222	42.4
6	무선통신기기	80,352	-3.7	159,112	98
7	컴퓨터	121,752	41	134,315	10.3
8	고무제품	114,888	7.2	123,962	7.9
9	의류	97,551	5.2	95,667	-1.9
10	자동차	72,473	23.2	80,508	11.1
합계		2,728,728	29.8	3,564,781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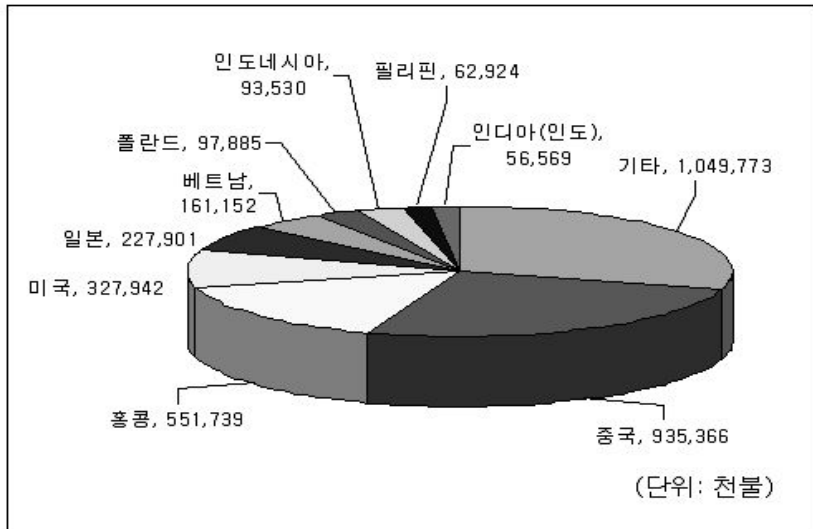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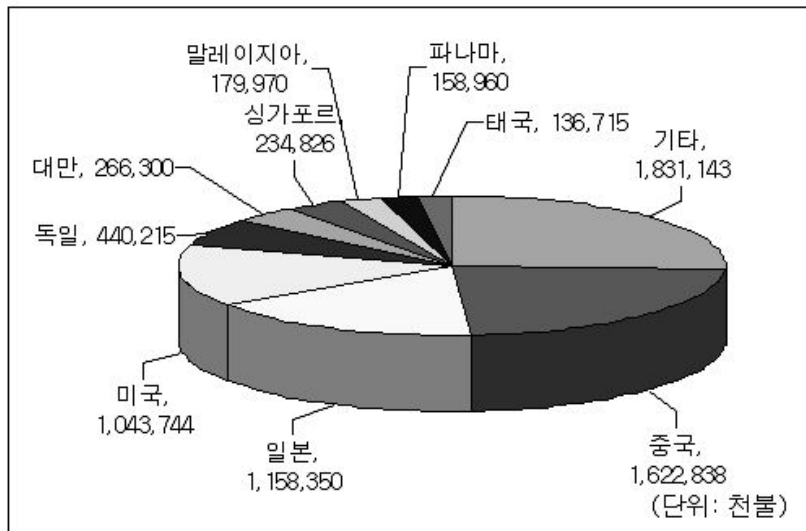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847,242	111.9	728,554	-14.0
2	컴퓨터	458,186	-22.4	399,089	-12.9
3	의류	383,366	71.9	332,015	-13.4
4	항공기 및 부품	293,264	-25.1	287,961	-1.8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09,664	19.3	241,697	15.3
6	석유제품	170,948	25.2	241,503	41.3
7	자동차	232,221	-12.8	212,158	-8.6
8	플라스틱제품	92,287	24.4	204,526	121.6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29,579	265.3	169,989	31.2
10	농약 및 의약품	132,714	20.5	141,920	6.9
합계		8,002,066	53.2	7,073,061	-11.6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